

중국인의 페루 이주와 리마 정착 초기 전염병 확산 과정에서의 사회적 배제*

서 지 현

(부경대학교 조교수)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그동안 국내 라틴아메리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은 소수 인구 집단인 중국인 이민자 집단을 대상으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중국인 이민자 집단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페루에서 이들의 정착 초기 사회적 배제 경험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본 연구는 19세기 중반 이후 계약 노동자인 중국인 쿨리(Coolie)가 페루로 이주하게 된 복합적인 배경을 분석했다. 그리고 이들과 더불어 20세기 초부터 중국 출신의 새로운 자유 이주민이 합류하게 되면서, 중국인 이민자들이 페루의 수도인 리마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된 사회적 배제와 그 원인을 분석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우리 사회도 경험했듯이 전염병의 발병과 확산은 대중들의 불안과 공포에 기대어 한 사회에서 축적되어 온 특정 사회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배제의 감정을 가시화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다. 이러한 지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1903년 리마에서 확산된 선페스트 전염병과 페루 사회의 대응을 중심으로 전염병 확산 과정에서 가시화된 중국인 이민자 집단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1세기 들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의 교류가 다양한 측면에서 심화되고 있는 점에서 그동안 국내에서 주목을 덜 받은 라틴아메리카 내 아시아계 소수 인구 집단의 초기 정착 경험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 쿨리, 중국인 이민자, 이민, 전염병, 사회적 배제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C2A02093112).

I. 머리말

그동안 국내의 라틴아메리카 소수 사회 집단에 관한 연구는 주로 원주민이나 아프리카계 흑인에 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했다(박도란 2023, 이성훈 2017, 2016, 임두빈 2015, 정이나 2015, 조영현 2015, 김달관 2014, 서성철 2014, 김윤경 2013, 김기현 2010, 김영철 2008, 2005, 문남권 2005, 주종택 2005). 라틴아메리카에서 아시아계 소수 민족 중 중국인이나 일본인 이민자 집단의 역사는 길고, 그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지만, 국내 연구는 주로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정착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뤘다(이재학 2022, 김영철 2021, 이채문·박신규 2020, 최진욱 2019, 신형진 외 2016, 염미경 2013, 서성철, 2004). 예외적으로 19세기 라틴아메리카로 이주했던 계약 노동자인 쿨리(Coolie)에 관한 역사적 연구가 존재한다(유성희 2023, 김동하 2021, 오영인 2019, 정영구 2018, 2017).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라틴아메리카의 근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인구 집단으로서 역할하고 현재 라틴아메리카 사회에서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상대적으로 국내 연구에서 주목을 덜 받은 중국인 이민자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페루는 미주 대륙에서 중국인 이민자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국가이다(김동하 2021:320). 19세기 중반 이후 계약 노동자인 쿨리(Coolie)의 신분으로 페루로 이주를 시작한 중국인들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는 자유 신분으로 이주했다. 이들 중 다수는 수도 리마에 정착했다. 20세기 중반 이후 ‘페루의 중국화(chinización del Perú)’라고 명명할 만큼 많은 수의 중국인 이민자들은 페루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지만, 정착 초기에는 엘리트 뿐만 아니라 대중 계급들 다수가 중국인 이민자 그룹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Sen 2005:109). 이는 근대화를 목표로 페루 국민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국인 이민자들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0세기 초 중국인 이민자들을 향한 거부와 배제의 담론은 태평양 전쟁 이후 본격적인 근대화를 추진한 엘리트 세력과 근대화에 동조했던 다수의 대중 세력에 의해 공유되었다. 특히 페루 사회로부터 중국인 이민자들이 경험한 사회적 배제 경험은 20세기 초 발병한 선페스트 전염병 확산 과정에서 더욱더 가시적이고 폭력적으로 드러났다. 즉, 전염병은 사회 내에서 특정 사회 집단에

대해 존재해 오던 차별이나 배제의 감정을 증폭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노고운(2022)은 윈 반 담과 윈 번 레르베르헤(2000)의 논의를 인용하여, 과거 유럽에서 유행성 감염병이 발병했을 때 나타났던 주요 사회적 반응을 소개했다. 사람들은 유행성 감염병에 대해 크게 “공포와 탈주”, “탓하기와 설명”, “정책 당국을 향한 호소”라는 반응을 보였다(Wim Van Damme and Wim Van Lerberghe 2000:511, 노고운 2022:368에서 재인용).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19가 초기 빠르게 전염되었던 시기를 상기해 보면, 병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포와 불안이 야기되고, 특정 사회 집단이나 지역에 전염병 확산의 책임을 돌리고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으며, 정부에 빠른 방역 및 치료 해결책 등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전염병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전염병 확산 방지나 해결을 위해 정부 당국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전염병에 대한 대중들의 불안과 공포에 기대어 사회 속에 내재한 특정 사회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 여론 조장되고, 정책 시행 과정에서 구조적 불평등과 배제 등이 공고화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염병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염병은 “의학적인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특정 집단에게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노고운 2022:375). 더욱이 전염병의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설명되지 않거나 방역 당국의 전염병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사회 집단을 향한 ‘비난하기(blaming)’ 혹은 ‘책임 묻기’는 전염병으로 인해 혼란스러워진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방식으로 빈번하게 나타난다. 넬킨(Nelkin)과 길먼(Gilman)(1998)에 따르면, 전염병의 발병과 확산의 책임을 특정 사회 집단이나 장소의 탓으로 돌리는 전략은 사회를 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Nelkin and Gilman 1998:362). 다시 말해, 전염병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확산된 배경에서는 특정 개인, 집단, 장소에 전염병 발병과 확산의 책임으로 돌림으로서 주류 집단이 권장하는 생활 습관이나 도덕적 윤리와 그렇지 않은 행동을 경계 짓거나,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특징과 관련된 사회 집단이나 장소를 배제 혹은 격리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경계 짓

기와 비난하기 혹은 책임 묻기를 통해 기존의 사회 질서나 특정한 규범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Nelkin and Gilman 1998).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페루의 주요 인구 집단 중 하나인 중국인 이민자 집단의 페루 정착 초기의 경험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본 연구는 19세기 말~20세기 초 사이 왜 많은 중국인이 페루로 이주하게 되었고, 정착 초기 페루 사회에서 이들은 왜 사회적 배제의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를 전염병 발병과 관련해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센(Sen)은 페루에서 근대화 담론이 형성된 시기를 3시기로 나누어 설명했다. 첫 번째는 식민 시기 말기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일련의 개혁이 이뤄졌던 시기이고, 두 번째는 19세기 중반 구아노 붐과 함께 자유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던 시기, 세 번째는 태평양 전쟁(1879~1883년) 이후 상대적인 정치·경제적 안정이 확보된 상태에서 새롭게 형성된 엘리트 계층의 주도로 본격적인 근대화 담론이 형성되었던 시기이다(Sen 2005:113-114). 본 연구는 페루 역사가인 호르헤 바사드레(Jorge Basadre)가 ‘레푸블리카 아리스토크라티카(República Aristocrática, 1895~1919년)’라고 명명하는 세 번째 시기에 주목한다. 특히 본 연구는 1903년 리마 근처 항구인 카야오(Callao)에서 발병한 선페스트 전염병이 수도 리마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중국인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살펴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염병에 대한 사회적 반응, 특히 전염병의 발병이나 확산의 책임을 특정 사회 집단에 떠넘기고, 비난하는 것은 전염병으로 혼란해진 사회 내에서 질서를 잡기 위한 통제 전략이다. 동시에 비난이나 책임의 대상이 된 사회 집단의 존재를 통해 그 사회 내에서 오랫동안 축적해 온 불균등한 권력 관계나 사회적 편견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세기 초 페루에서 확산된 선페스트 전염병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이 시기 리마를 중심으로 한 페루 사회 내에서의 중국인 이민자 집단의 사회적 배제 경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19세기 중반 이후 많은 중국인이 페루로 이주하게 된 요인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19세기 중국인 쿨리와 이후 자유 신분으로 이주한 중국인들이 수도 리마에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4장에서는 전염병 확산 과정에서 중국인 이민자들은 어떤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이러한 사회적 배제는 근대화 담론과 어떤 상관성을 가

지는지에 관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논문을 마무리한다.

II. 19세기 중국인 쿨리(Coolie)의 페루 이주 요인

중국인이 페루로 이주, 정착하게 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 중반 이후 중국인 쿨리(coolie)가 페루로 이주하게 된 요인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쿨리(Coolie)는 힌디어에서 기원한 용어로, 19세기~20세기 초 사이 전 세계 곳곳으로 이주해서 일했던 인도 및 중국 출신의 아시아계 계약 노동자를 일컫는다. 본 장에서는 먼저 중국인 쿨리가 19세기 중반 이후 페루로 이주하게 된 요인을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로 국제적인 요인을 살펴보자. 19세기 제국주의적 팽창을 주도한 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 식민지를 건설하여 농장, 광산, 철도 등을 운영했다. 하지만 아이티 혁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서양 노예무역을 통해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착취당한 아프리카 출신 노예들의 반란이 18세기 말부터 이어졌다. 그 결과, 17세기 중반부터 유럽 열강의 자본주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대서양 노예무역은 19세기 초반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¹⁾ 때문에, 19세기 들어 유럽의 열강들은 플랜테이션 농장 등지에서 아프리카 출신 노예를 대체해서 일할 값싼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유성희, 2023:215). 인도, 중국 출신의 쿨리가 19세기 제국주의 유럽의 식민지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아프리카 출신의 노예 노동력을 대체했다. 이들은 1882년 미국에서 중국인 배척법(Chinese Exclusion Act)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주로 도미하여 사탕수수 농장, 탄광, 철도 건설 노동자로 일하거나, 인도 아삼 지역의 차(茶) 재배 노동자로, 쿠바 혹은 페루 등의 라틴아메리카 플랜테이션 농장 노동자로 일했다(유성희 2023:220-222, 배정환 2021:188).

1) 노예무역은 프랑스에서 1794년, 덴마크에서 1802년, 영국과 미국에서 1807년에 폐지되었으며, 19세기 중반경을 전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노예무역이 금지되고, 유럽 각국에서 노예제도도 폐지되었다(유성희 2023:215).

그렇다면, 왜 쿨리가 노예 노동력을 대체하게 되었을까? 19세기 쿨리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며 제국주의 열강이 주도한 세계 자본주의 체제 속으로 편입되었다 할지라도, 쿨리들이 왜 머나먼 이국 땅으로의 이주를 선택하게 되었을까는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는다. 때문에, 두 번째로는 중국인 쿨리가 이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중국 내부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세기 이전 청 정부는 치국(治國)을 위해 백성들의 국내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했다(박영종 2005:417). 하지만 19세기 들어 청 제국은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 정치·경제적 혼란을 겪게 되었고, 급기야 애로 전쟁(제2차 아편전쟁) 이후 1860년 영국, 프랑스와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면서, 쿨리 무역을 공인하게 되었다(유성희 2023:213). 이처럼 청 정부 차원에서 중국인 계약 노동자의 국외 이주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과는 별개로 중국인들이 계약 노동 이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1840~1842년 영국과 제1차 아편 전쟁을 치른 이후 19세기 청 제국은 “굴욕의 세기”로 불릴 만큼 급격한 변화와 혼란을 겪게 되었다(유성희 2023:203). 유럽 열강들은 연해 지방을 개방하도록 청 제국에 압력을 가하면서 일련의 특권을 쟁취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중국인이 생계의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박영종 2005:418, 유성희 2023:202). 국력이 쇠한 틈에 관리들은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유례없는 가난을 경험했다(박영종 2005:423, 정영구 2018:198). 19세기 청 제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 속에서 유럽 열강들과 쿨리 무역상인들은 중국인 쿨리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빈곤한 상황에 부닥쳐 있던 많은 중국인이 고향을 떠나 쿨리 무역선에 몸을 신게 되었다(박영종 2005:423-424). 이들 중 상당수는 샤먼, 광저우, 마카오, 닝보, 홍콩 등의 항구 도시에서 출발한 쿨리 무역선을 타고 미국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의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향했다(유성희 2023:222).

19세기 많은 중국인 쿨리가 특히 페루로 이주를 가게 된 요인은 무엇일까? 공식적으로 쿨리는 계약서를 작성한 뒤 노동 이주를 떠난 계약 노동자였다. 하지만 실제 쿨리는 노예 노동이나 다름없는 노동환경에서 착취당했다. <苦社會>(고사회)라는 중국 근현대 소설에서는 쩐뺩(馒头, 만티우) 두서너 개로 하루 끼니를 대신하면서, 대소변을 위한 화장실도 없이 그대로 옷에 배설하고, 빛도 들지 않는 선실에 한꺼번에 수용되어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쿨리들이 선상에서 경험한 비참한 실상을 잘 묘사하고 있다(박영종

2005:425). 이렇게 열악한 선상 환경으로 인해 중국인 쿨리 무역선에서의 초창기 사망률은 평균 25~30%에 달했다고 한다(유성희 2023:230). 1848~1873년 사이 페루로 향했던 선박은 총 26대로 배에 탑승했던 중국인 쿨리 11,471명 중 사망한 중국인의 수가 4,036명으로 사망률이 35.1%에 이르렀다(유성희 2023:231). 이처럼 높은 사망률은 노예 운송 선박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협소한 공간에 뺄뺄하게 밀집한 쿨리들이 장기간의 항해 동안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유성희 2023:231). 하지만 열악한 선상 환경을 견뎌내고 막상 목적지에 계약 노동자로 도착한 쿨리들은 다시금 거의 노예와 다름없는 노동환경에 마주하게 되었다. 실제 일터에서 쿨리들의 노동 조건, 임금 등을 보장하기에 노동계약서는 이미 유명무실한 상태였으며, 오히려 계약서가 쿨리들을 농장주의 소유물로 귀속시키는 법적 장치로 작용했다(유성희 2023:229). 때문에, 중국인 쿨리들은 실제 아프리카 출신의 노예들과 큰 차이가 없는 착취를 당했다(유성희 2023:228).

선상과 실제 농장에서 중국인 쿨리에 대한 처우를 고려해 보았을 때, 이들이 페루로 이주하게 된 것은 쿨리 스스로의 결정이었다고 하기보다는 앞서 살펴본 국제적인 배경과 중국 국내의 상황과 더불어 페루 사회에서의 쿨리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페루 내 부적 상황에서 먼저 고려해야 할 요인은 노동 공급의 감소 요인이다. 19세기 페루의 주된 경제 활동 중 하나는 북부와 남부의 해안지역에서 운영된 플랜테이션 농업이었다. 북부 해안지역에서는 주로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이 운영되었고, 남부 해안지역에서는 주로 면화 플랜테이션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플랜테이션에서는 여전히 식민 시대와 같이 노동력 착취에 근거한 생산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력 확보의 문제는 농장주들의 주된 관심사였다. 하지만 이미 식민 시대 말기였던 18세기 중반경부터 페루에서는 노동력 부족에 따른 농업 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식민지 시기 페루의 해안지역 플랜테이션에서 일한 주된 노동력은 흑인 노예였는데, 식민 시대 말기 플랜테이션에서 노동력이 부족했던 주된 요인 중 하나는 흑인 노예에 대한 착취가 심해지면서 점차 도망치거나 불복종하는 노예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Villafuerte 2012:127). 이처럼 플랜테이션에서 일하는 흑인 노예는 수적으로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착취로 인해 노예의 노동 생산성도 낮아졌기 때문에, 식민당국은 점진적으로 해방 노예 허용을

위한 법안을 공포하기 시작했다(Villafuerte 2012:127). 그 결과 19세기에 이르면, 노동력으로서 흑인 노예의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데, 1821년 41,228명이었던 흑인 노예는 1854년에 이르면 1만 7천 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마저도 대부분은 나이가 들거나 반란에 동참하고자 하는 노예들이었다(Villafuerte 2012:127). 이와 같은 흑인 노예 노동력의 감소는 특히 해안 지역 대농장주들의 주된 걱정거리 중 하나였으며,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 중 하나가 미국과 쿠바의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먼저 받아들이기 시작한 중국인 쿨리들이었다.

특히 중국인 쿨리의 이민을 통해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세력은 해안지역의 대농장주들이었다. 이들은 쿨리 노동자 유입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1847년 당시 하원의원이었던 마누엘 델 라 토레(Manuel E. de la Torre)는 의회에 이민법안을 제출하고 노동력 수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de Trazegnies 1999:1012). 하지만 델 라 토레가 제안한 이민법안은 이민자들에 대한 면세 혜택과 토지 분배 등 급진적인 안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거부되었다(de Trazegnies 1999:1012). 이후, 영향력 있는 정치가이자 투자자인 도밍고 엘리아스(Domingo Elías)가 이민 대리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정된 이민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1849년 의회의 승인을 얻어냈다(de Trazegnies 1999:1012-1013). 이러한 과정을 거쳐 1849년 라몬 카스티야(Ramón Castilla) 대통령의 집권기에 이민법이 통과하면서 1849년 10월 카야오(Callao) 항을 통해 75명의 쿨리들이 페루로 입국했다(de Trazegnies 1999:1011). 이와 더불어 카스티야 정부는 1854년 흑인 노예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하였다(Lossio 2021:69-70, Ragas and Palma 2022:384).

하지만 쿨리의 이주에 페루 사회 전반이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저렴한 중국인 노동력이 필요했던 해안지역의 대농장주들과는 달리, 리마를 비롯한 대도시의 주요 엘리트 세력은 열등한 인종으로 보았던 중국인들이 페루로 유입되는 것이 국가 근대화와 진보에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았다. 특히, 의사, 과학자, 노동계급 등은 중국인들이 인종적으로 열등하고, 전염병의 온상이며, 아편 사용과 같은 악습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여 중국인들의 이주에 반대했다(Lossio 2021:71). 이들의 반대로 1849년에 제정된 법이

1853년에 폐지되기는 했지만, 대농장에선 비공식적으로 쿨리의 노동이 지속되었다. 실질적인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19세기 중반 이후 쿨리가 페루로 대량 유입되는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 쿨리의 유입이 페루에서 공식화되기 시작한 1849년부터 1874년 기간 동안 페루로 이주 온 중국인 이민자의 수는 약 10만 명에 이르렀다(Lossio 2021:70). 하지만, 저렴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대농장주들과 근대화 전략으로 아시아인보다는 유럽인의 이주를 선호²⁾했던 도시 엘리트 세력 간의 이견 속에서 계속 법제가 변화하여, 쿨리의 페루 유입이 공식적으로 금지되는 시기도 있었다. 가령, 페루에서는 1856년 3월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가, 1861년 다시 중국인의 이민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했다(Villafuerte 2012:133, de Trazegnies 1999:1011-1012). 이후에도 도시의 엘리트들은 유럽인의 인종적, 문화적, 윤리적 우월성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결국 1873년 카야오항에서 아시아인 이주민 등록제를 시행하여 아시아인의 입국과 활동을 통제하다가, 1874년 다시 이들의 입국을 금지하도록 결정했다(Villafuerte 2012:133).

이처럼 19세기 동안 페루 정부는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엘리트 그룹 간의 이견 속에서 사실상 이민 관련 조치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쿨리들의 유입을 통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Villafuerte 2012:133). 때문에, 실제 1849년에서 1874년 사이 페루로 이주 온 계약 노동자들은 대농장의 저렴한 노동력 수요와 더불어, 노동자 이민을 대리하면서 경제적 이윤을 추구했던 이민 대리인들의 활동

2) 독립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인구 정책은 근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엘리트들은 이민 정책을 통해 유럽에서 이민자들을 인구로 받아들여 유럽화 혹은 유럽식의 근대화와 진보를 추구했다(Melchor 2004:181). 하지만 페루의 경우, 주변 국가들과 달리 유럽으로부터의 이민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반면, 페루의 엘리트들이 본격적으로 근대화 발전을 추진하기 시작한 19세기 중반경부터 경제 발전을 위한 중상주의적 목적에서 노동력 확보를 위해 많은 중국인 쿨리들이 이주해왔다. 19세기에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미국, 캐나다 등지로의 이주 기회가 충분했기 때문에, 페루가 상대적으로 유럽인들에게 매력적인 이민 대상지는 아니었다(Parker 1998:156-157). 특히, 1860~1870년대에는 페루로도 유럽인들이 이주했지만, 이후 경제 위기와 태평양 전쟁(1879~1883년)으로 페루는 더 이상 유럽인들에게 매력적인 이주 목적지가 아니었다(Parker 1998:157).

에 힘입은 바도 크다고 볼 수 있다. 가령, 1849년 이민법 제정을 주도하는 데 기여했던 도밍고 엘리아스의 경우, 중국인의 페루 이민 초기 홍콩에 대리인을 두고 중국인 이민 대리 사업에 참여하는 독점권을 확보하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많은 이윤을 차지하기도 했다(de Trazegnies 1999:101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세기 유럽의 제국주의적 팽창에 따른 식민지 건설과 플랜테이션 농장에서의 값싼 노동력에 대한 수요 증가와 노예 무역의 폐지에 따른 국제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 19세기 서구 열강의 침입과 혼란에 따른 중국 내부의 혼란과 열악한 생계 환경, 19세기 중반 이후 페루에서의 흑인 노예 노동력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 페루 정부의 이민법 제정, 페루-중국 간 이민 대리인들의 활약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힘입어 1849년~1874년 사이 약 10만 명의 중국인 쿨리들이 페루로 이주했다. 이 시기 페루에서는 사탕수수와 면화 대농장과 더불어 구아노(guano)³⁾ 수출 붐이 진행되었다. 또한, 리마를 비롯한 도시에서는 근대화 발전을 위한 철도 건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곳곳에서 저렴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상황이었다. 이 시기 페루로 입국한 쿨리들은 주로 페루 해안지역의 플랜테이션 농장, 구아노 추출이 한창이던 친차(Chincha) 섬, 철도 건설 현장으로 투입되었다(Ragas and Palma 2018:165, Parker 1998:157).

하지만 페루의 경제 성장 및 근대화 발전 사업 현장의 곳곳에 투입되었던 중국인 쿨리들의 노동환경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흑인 노예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실제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쿨리들은 포로와 같이 속박된 상태였고, 매일 밤 이들이 농장에서 도망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장주들은 오두막에 이들을 가두기도 했다(de Trazegnies 1999:1015). 쿨리들은 계약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된 농장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들이 농장을 이탈할 때는 도망으로 간주하여 경찰이나 전문 요원들이 투입되어 이들을 잡아들였다(de Trazegnies 1999:1016). 한편, 구아노 추출 현장 역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였는데, 1853년 약 592명의 중국인 쿨리가 구아노

3) 구아노(guano)는 페루 근해에 위치한 섬에 쌓인 새의 배설물로 인산염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비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1840~1870년 사이 페루의 주요 수출 자원으로 자리잡았다(서지현 2021:125).

채취를 위해 친차 섬에서 일했다. 페루에서 구아노의 추출은 약 40년간 페루의 핵심적인 경제 활동이었지만, 노동 체계는 매우 원시적이었다(Villafuerte 2012:132). 열악하고 착취적인 노동환경으로 인해 많은 중국인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페루 정부는 구아노 추출 현장에서 노동을 금지하기도 했다(de Trazegnies 1999:1015).

19세기 동안 페루에 이민 온 쿨리의 약 90%가 면화나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에서 일했는데, 8년 계약이 종료되면서 이들에게 일정 부분 선택권이 주어졌다(Villafuerte 2012:131). 이들 중 30~40%의 노동자들은 같은 농장에서 재계약되었지만, 일부 농장주들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새로 도착한 중국인 노동자들과 계약하길 원하기도 했다(Ragas and Palma 2018:165, Villafuerte 2012:131). 재계약을 하지 않은 쿨리는 자유 노동자가 되어, 주변 마을이나 도시로 이동했다(Ragas and Palma 2018:165, Villafuerte, 2012:131). 또한, 19세기 말이 되면 일부 쿨리들은 농장을 소유하여 중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기도 했다(de Trazegnies 1999:1020).

이처럼 1849~1874년 사이 쿨리라는 계약 노동자 신분으로 페루에 이주해 왔던 중국인들은 19세기 말부터 자유 노동자의 신분으로 농장 주변 마을이나 리마와 같은 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20세기 초부터는 중국 출신의 자유 이주민들도 페루로 이주하기 시작했다(de Trazegnies 1999:1020). 이 과정에서 자유 신분이 된 쿨리와 새롭게 이주한 중국인 이민자들은 페루 곳곳에서 중국인 촌(Barrío Chino)을 형성하고 다양한 경제 활동에 종사하기 시작했다(de Trazegnies 1999:1020). 1903년의 센서스에 따르면, 페루 전체에 체류 중인 중국인의 인구는 11,332명이었는데, 그중 32%인 3,572명이 리마에 거주했다(Melchor 2004:184). 아래에서는 중국인들이 어떻게 중국인 촌(Barrío Chino)을 형성하고 리마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Ⅲ. 20세기 초 리마 중국인 촌의 형성

계약 기간이 끝난 쿨리들은 리마나 대농장 근처의 도시로 이동해서 다양한 직군에 종사하기 시작했다. 특히 20세기 들어 자유 신분이 된 쿨리들과

새롭게 이주한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정착한 지역은 수도인 리마였다(Villafuerte 2012:137). 1908년경 리마에 정착한 중국인들이 종사한 주요 경제 활동으로는 농업(1.9%), 산업과 수공업(12.8%), 상업(43.9%), 서비스업(25.5%) 등으로 상업과 서비스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다(Villafuerte 2012:131).⁴⁾ 중국인들은 주로 구두 수선공, 과자 판매자, 요리사, 도로 청소부, 가사 도우미 등으로 종사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작업장을 운영하거나 상점, 식당, 숙박업소를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Melchor 2004:185). 또한, 아편 장사, 도박장 운영 등 사회적으로 덜 인정받는 일에 종사하기도 했다(Melchor 2004:185).

이처럼 주로 상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중국인들이 리마에서 자신들만의 정착촌을 형성하기 시작한 곳은 도심의 중앙 광장에서 동쪽으로 여섯 블록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카폰 거리(Calle Capón)⁵⁾ 근처 지역이다(Palma and Ragas 2018:166). 이 지역에 중국인 촌이 형성되게 된 계기는 이곳에 리마 중앙시장(Mercado Central)⁶⁾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현대식의 중앙시장이 카폰 거리에 형성된 것은 주로 상업과 서비스 활동에 종사했던 중국인들이 이 지역에서 자리잡고 정착촌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Lausent-Herrera 2011:70).

식민 시기 리마의 시장은 주로 중앙 광장이나 주요 교회 근처에서 비정기적으로 열리면서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만남의 장소로서 역할을 했다(Rodríguez 2014:368-369, Cultura para Lima 2018). 또한, 19세기 중반 현대적 개념의 시장이 생기기 전에는 주로 중앙 광장이 시장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중앙 광장은 물건과 사람이 얽히고, 무질서와 소음을 가득 발생시켰으며, 동시에 많은 양의 쓰레기를 만들어냈다(Rodríguez 2014:369). 이러한 문제 때문에 당국은 계속해서 길거리의 상인들을 중앙 광장에서 몰아내고자 했다(Rodríguez 2014:369). 비정기적 시장 개장으로 무질서와 위생 문제

4) 1908년경 리마에 거주한 중국인은 약 5,019명 정도였는데, 이 중 약 45%가 리마의 도심 및 상업 지역에 정착했다(Ragas and Palma 2018:166).

5) 카폰 거리는 오늘날 히론 우카얄리(Jirón Ucayali)의 7번째 블록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6) 개장 당시에는 라 콘셉시온 시장(Mercado de la Concepción)이라고 불렀다.

가 반복해서 발생하면서 현대적 개념의 중앙시장을 건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Rodríguez 2014:369). 19세기 중반 시작된 구아노 붐으로 페루와 수도 리마의 근대화 발전을 꾀한 카스티야(Castilla) 대통령은 1851년 대통령 담화를 통해 시장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했다(Rodríguez 1999:403). 현대식 시장을 건설하는 데 있어 정부가 직면한 문제는 시장을 건설한 장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다. 카스티야는 이미 집권 1기였던 1846년 12월 법령을 통해 라 콘셉시온(La Concepción) 수도원의 일부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Rodríguez 1999:403). 수도사 중 일부가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기도 했지만, 카스티야 정부하에서 토지 수용은 큰 문제없이 진행되었다(Rodríguez 1999:403-404). 이후 1850년경에는 수도사들은 거의 수도원을 떠난 상태였고, 일부 지역은 이미 도살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곳에 1852년 중앙시장이 개장했다(Rodríguez 2014:369-370, Rodríguez 1999:399).

중앙시장의 개장과 함께, 중국인들이 시장 주변과 카폰 거리 주변에 서서히 자리 잡으면서 상업 활동을 했다. 중국인들은 식당을 열고, 도박장이나 아편(가게⁷⁾)을 운영하기도 했으며, 작업장이나 상점을 열어 적극적으로 상업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Rodríguez 2014:375). 이미 1854년부터 계약 노동자 상태에서 벗어난 콜리들이 리마 중앙시장 근처로 몰려들기 시작했으며, 이후 많은 중국인 이민자에게 중앙시장과 카폰 거리 주변 지역은 경제 활동의 공간이자 정주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Lausent-Herrera 2011:70, Ragas and Palma 2018:166). 더욱이 1860년대 말에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페루로 넘어온 중국인 상인들이 중앙시장 지역에 정착하면서, 미국과 중국에서 가져온 상품과 먹거리를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이 지역은 점차 상업적인 공간으로 변모했다(Lausent-Herrera 2011:71). 1883년경 리마 도심에 형성되기 시작한 중국인촌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샌프란시스코와 아바나(Habana) 다음으로 세 번째로 형성되었다(Sen 2005:122; Ragas and Palma 2022:386).

7) 이주해 온 많은 중국인은 아편을 피웠는데, 처음에는 아편 사용에 대한 국가의 규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농장주들이 콜리에게 공급하기도 했다(Cabrejo 2001:160). 페루 정부는 1874년 법령을 제정하여 법적 권한을 허가받은 사람과 가게에서만 아편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아편은 밀수되어 거래되었다(Cabrejo 2001:159-160).

19세기 후반 이후 농장과 재계약하지 않고 자유 신분으로 풀려난 쿨리들과 20세기 자유 이민을 한 중국인들이 이 중국인 촌으로 밀려들면서 중국인 촌의 인구 밀도가 높아졌다(Rodríguez 1999:417). 리마 도심의 중국인 촌으로 중국인들이 몰려들면서 저소득층의 이민자들은 리마의 다른 저소득층 인구와 마찬가지로 카예혼(callejón)⁸⁾과 같은 좁은 셋방에 밀집되어 정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중국인 이민자들이 거주한 대표적인 카예혼이자, 중앙시장 근처에 있는 카예혼 오타이사(Callejón Otaiza)의 경우, 주거 공간이 매우 좁고, 어두웠으며, 환기가 잘되지 않고, 습도도 높은 매우 열악한 주거 환경이었다(Rodríguez 1999:418). 더욱이 많은 중국인이 카예혼 내부 혹은 작업장에서 목수일, 빵 제조, 대장장이 일, 신발 수선, 세탁업, 요리, 숙박업 등 다양한 업무에 종사했다(Rodríguez 1999:418-419). 물론 중국인 촌에는 중국인 이민자들만 정주하고 상업 활동에 종사한 것은 아니었으며, 아프리카계 페루인, 원주민 등 점차 노동자 및 다양한 저소득층 인구가 정주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Lausent-Herrera 2011:72). 1880년대 이후 카예혼 오타이사는 리마에서 중국인이 가장 많이 밀집해 사는 정주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며, 많은 인구가 밀집하여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으로 악명이 높았다(Ragas and Palma 2022:388).

20세기 초를 전후한 시기 리마 도시에 위치한 카예혼은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다양한 인종이 한데 어울려 살던 정주 공간이었다. 높은 인구 밀도와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으로 인해 지속해서 전염병의 온상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다양한 상업 활동뿐만 아니라 아편, 도박, 매춘의 장소로 비윤리적이고 전근대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특히 20세기 초엽을 전후하여 리마를 유럽과 같은 근대화된 도시로 변모시키길 원했던 엘리트들과 일반 대중들에게 카예혼은 특히 철거하거나 개조해야 할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카예혼 중 중국인 이민자들이 밀집해 살던 카예혼 오타이사는 20세기 초 리마에서 전염병이 확산하는 국면에서 그동안 존재해 오던 인종주의적 요소와 유럽식의 근대화와 진보에 대한 열망이 교차하여 철거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4장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

8) 카예혼은 “주로 저소득층이 거주한 주거지로 협소한 골목에 좁은 주거 공간이 집합한 다주택 주거지를 일컫는다” (서지현 2021:124).

볼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인 이민자들은 페루의 근대화 국면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 특히 19세기 중반 이후 페루로 이주해 온 중국인 쿨리 노동력은 당시의 페루의 경제 성장에 기여한 바가 크다(Villafuerte 2012:127).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쿨리를 포함한 중국인 이민자들이 페루 사회에 통합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특히 근대화 시기 엘리트 계층을 포함한 페루 사회 전반이 가졌던 중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인종적 편견은 꽤 오랫동안 지속했으며, 근대화 과정에서 이러한 인종적 편견은 전염병과 같은 공중 보건 위생의 위기와 더불어 더욱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다음 장에서는 페루 근대화 시기 리마에서 지속해서 발생한 전염병과 전염병 대응 과정에서 중국인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IV. 전염병과 중국인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

1. 리마에서 전염병 확산과 대응

독립 이후 리마에서는 주기적으로 전염병이 확산하여 많은 인명을 앗아갔다. 특히 구아노 붐 시기 국제 무역 성장으로 물자와 사람의 교류가 증대하면서, 리마로의 전염병 유입이 빈번해졌다(Lossio 2021:67-69, Lossio 2003:57). 19세기 가장 빈번하게 발병했던 대표적인 전염병인 황열병은 19세기 중반 4천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기도 했다(Urquiza 2014:9). 한편, 1903년 4월 초 카야오 항 근처의 한 제분소(Molino Milne)에 쌓인 밀가루와 쌀 포대 사이에서 많은 수의 쥐가 폐사한 것이 발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10명 이상의 노동자가 연이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Cueto 1991:1). 처음에는 사망원인을 폐렴으로 진단했으나, 이후 쥐 벼룩을 통해 인간에게 전염되는 선페스트(peste bubónica)로 인한 사망임이 밝혀졌다(Lossio 2021:84). 카야오에서 발병한 선페스트는 곧이어 리마를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1903~1930년 사이 기간 선페스트에 약 2만 명이

감염되어 그 중 절반 정도가 사망했다(Arquiñigo 2019).

전염병의 확산은 감염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을 뿐 아니라 감염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공포심과 두려움을 유발했다. 특히 당국은 전염병 확산에 따른 우려로 인해 항구를 폐쇄했으며, 이 때문에 물자 교류가 줄어들면서 기초 물품을 포함한 많은 물자의 품귀 현상과 가격 급등 현상이 이어졌다(Cueto 1991:5). 따라서 당국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전염병의 병인에 관해서는 장기설과 세균설의 우위에 대한 논쟁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의사는 양자를 모두 전염병의 원인으로 취했다(Lossio 2003:58-59). 하지만 19세기에는 전염병의 병인으로 장기설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즉, 전염병은 쓰레기 더미, 오염된 물이나 공기 등에서 발산되는 오염된 냄새 혹은 기운 등으로부터 발병한다는 장기설이 지배적인 병인으로 인식되었다(Lossio 2021:73). 물론 20세기 초엽 백신이 개발되어 도입되는 등 과학과 의학적 지식이 발전하면서 세균설의 영향도 증가했지만, 여전히 주거지, 영양 상태, 위생 교육 등의 사회적 조건의 개선이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Lossio 2021:80-81). 특히 장기설의 관점에서 리마의 열악한 주거 환경은 전염병의 온상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독립 이후 리마의 도시 근대화는 구아노 붐이 한창이었던 19세기 중반부터 시도되었지만, 1879~1883년 사이의 전쟁으로 인해 근대화 시도는 중단되었다(서지현 2021). 전후,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형태로 페루의 근대화 발전을 열망한 페루 엘리트들은 리마를 근대적이고 위생적인 수도로 만들고자 했다(Ragas and Palma 2018:164). 이들은 수도인 리마가 런던, 파리, 뉴욕에 버금가는 근대적 공간이 되길 원했으며, 동시에 건강하고 위생적인 공간이길 원했다. 특히, 중상주의적 관점에서 건강한 노동 인구의 확보는 국부 성장에 중요한 과제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이주정책과 더불어 위생적인 보건 환경을 확보하여 사망률을 줄이는 것 또한 19세기 말 이후 엘리트들의 중요한 관심사였다(Lossio 2003:48). 페루 엘리트들의 관점에서 리마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나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와 같이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질서정연함을 갖춘 근대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Parker 1998:153). 이는 도시 내 기본 서비스와 기초 기반 시설을 갖추는데 정부 재정이 부족한 탓도 있었지만, 페루 엘리트들이 무엇보다 리마 근대화의 걸림돌이라고 보았던 지점은 문명화되지 못하고

비위생적인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었다(Parker 1998:153). 때문에, 엘리트들이 열망했던 리마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상수도 건설, 도로포장과 같은 도시 건조 환경을 개선하는 일뿐만 아니라, 무지하고 문명화되지 못한 대중을 계몽하고 새로운 근대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Parker 1998:153).

특히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위생적인 도시 환경을 확보하는 일에 위생주의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Ragas and Palma 2018:164). 19세기에 등장한 위생주의(higienismo)는 도시 환경과 사람들의 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해 병과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일련의 의학 운동을 일컫는다(Lossio 2021:90). 페루에서 위생주의의 영향은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으며, 1869년 리마 도시 근대화의 전환점을 마련한 리마 성벽 철거 결정에 중요한 원동력을 제공하기도 했다(서지현 2021). 주로 중산층을 기반으로 하고 있던 의사들은 위생주의를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위생적인 도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보았다(Parker 1998:158). 위생주의자들은 생활 방식과 주거 환경에 대한 규율의 변화가 위생 환경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Lossio 2021:91). 때문에, 이들은 주로 목욕, 양치하기, 아편 소비 피하기, 알콜 소비 습관 피하기, 운동하기 등 개인의 위생 개선 교육과 주거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Lossio 2021:91).

19세기 말까지 위생 및 보건 문제는 정부가 담당할 책무가 아니었다. 20세기 이전 건강의 문제는 개인 혹은 가정의 문제였고, 의사들은 공공 정책 형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Arquiñigo 2019). 때문에, 20세기 이전에는 주로 도시 당국, 종교 조직, 자선협회 등이 위생 문제를 담당했다(Lossio 2021:72). 하지만, 1903년 4월 선페스트(peste bubónica)가 리마로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공중 보건 위기를 확산되었고, 특히 엘리트층 사이에서 리마 위생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조시켰다(Tamayo 2017:7). 이 과정에서 그동안 위생 전문가와 의사들이 지적해 온 도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가시화되었다. 페루 정부는 비로소 정부 차원에서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와 기관을 설립했다(Lossio 2021:40). 대표적으로 페루 정부는 1903년 산업부(Ministerio de Fomento) 산하에 공중 위생국(Dirección de Salubridad Pública)⁹⁾을 설립하여 위생 관련 조치들을 시행했다(Ragas and Palma

2018:174-175, Villanueva 2020:21). 이보다 앞선 1902년에는 리마 시 위생 협회(Instituto Municipal de Higiene)¹⁰⁾가 설립되었고, 1904년에는 선페스트 확산 방지 캠페인을 위한 위원회(Junta Directiva de la Campaña contra la Peste Bubónica de la Provincia de Lima)¹¹⁾를 조직하기도 했다(Villanueva 2020: 21, Lossio 2021: 85).

이처럼 20세기 초 전염병 대응 과정에서 공중 보건 관련 기관이 형성된 것은 19세기 말부터 이어져 온 근대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태평양 전쟁 이후 페루는 시민당(Partido Civil)을 통해 엘리트 중심의 정치 체제를 구축하였는데, 시민당은 주로 변호사, 상인, 해안지역 대지주들의 지지를 받았다(Cueto 1991:7). 이들은 국가를 근대화하고, 천연자원 수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위생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공중 보건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부를 축적하고자 했다. 근대화 시기 전염병에 따른 사망률의 증가는 국부 축적을 위한 노동력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러한 배경에서 도시 위생은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문제로 부각되었다(박선미 2022:31-32). 더불어 전염병이 퍼져 상류층의 거주지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국가와 위생 및 공중 보건 문제를 다뤄야 하는 이유가 되었다(박선미 2022:32).

선페스트 확산 방지를 위한 위생 당국의 대표적인 조치로는 위생 조사를 통한 감시와 감염자 격리를 들 수 있다. 먼저, 선페스트 확산 방지를 위해

-
- 9) 공중 위생국은 주로 격리소의 통제, 항구의 위생 검역장 관리, 지역 담당 의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Cueto 1991:6).
 - 10) 리마 시 위생 협회는 1902년 시장이었던 페데리코 엘게라(Federico Elguera)가 설립했다. 그는 리마 근대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시도했는데, 특히 광장과 거리를 재건하거나 건설하고, 시의 위생 기능을 근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Cueto 1991:7).
 - 11) 1904년부터 시행된 선페스트 확산 방지 캠페인을 위한 위원회에는 리마 시장을 비롯한, 공중 위생부장, 시의 위생 검역관, 자선협회 대표, 상공회 대표 등이 참여했다(Cueto 1991:8-9). 이 위원회의 결정으로 리마 시에서 위생 경찰(Policía de Salubridad)이 활동하였고, 쥐잡기 캠페인(쥐 한 마리당 5술 제공), 감염자를 위한 격리소 운영, 프랑스에서 살균제 수입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Cueto 1991:9). 이와 더불어 일시적으로 전염병 확산 기간 위원회는 학교, 사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폐쇄하고, 집안에서 동물을 키우는 것도 금지하였다(Cueto 1991:9).

정부와 리마 시 당국은 주로 위생 전문가들을 통한 위생 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위생 상황을 파악하고, 위생 경찰을 배치하여 위생 상황을 감시 및 통제하고자 했다. 특히 위생 경찰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각 주거지의 위생 상태를 검열하면서, 쓰레기 처리를 명령하고, 소독제를 뿌리고, 가정 내 물건들을 없애고, 바닥 아래를 검사하여 쥐를 죽이고 씩은 구멍이 있으면 시멘트로 막는 조치 등을 취했다. 이러한 위생 검열을 통해 위생 통계를 집계하고, 발병자가 있는 가정의 주소를 리스트업했다(Parker 1998:158-9). 특히 1904~1905년 사이 진행되었던 선페스트 확산 방지 캠페인을 통해 리마 위생 당국은 수천 가구를 소독하고 수십만 마리의 쥐를 박멸했다(Parker 1998:162).

이처럼 보건 당국이 위생을 강조한 것은 근대화 발전에서 위생이 근대성과 동시시되었기 때문이다. 즉, 엘리트들이 열망한 근대화 프로젝트에 위생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리마에서 도시 위생을 확보하고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주의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특히 이들 위생 전문가들은 전염병 확산 방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위생적인 개인행동이나 주거 환경의 개선을 강조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로 비위생적인 주거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특히 유색 인종을 개선의 대상으로 지목하였다. 다시 말해, 엘리트들과 위생 전문가들에게 위생은 근대화라는 과업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였고,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이나 대중 계급의 문화나 생활 습관은 특히 근대화와 진보에 대한 방해물로 인식되었다(Ragas and Palma 2018:162). 대부분의 환자가 빈민가에서 나오면서 빈민가나 하층 계급이 전염병의 온상이라는 인식이 덧씌워졌다(Cueto 2000:50). 때문에, 보건 당국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거 지역을 주된 위생 조사와 감시 및 통제 대상을 삼았다(Parker 1998:162). 이와 더불어 보건 당국은 전염병 감염자를 격리하거나 격리소로 보내는 조치도 취했는데, 이러한 격리 조치는 대중들의 반발이 가장 거세었던 조치였다. 특히 상류층은 전염병 확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공간에 대한 격리 조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다(Parker 1998:159). 특히 리마의 엘리트들은 중국인 촌을 리막(Rímac) 강변 너머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일부 당국자들은 슬럼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Parker 1998:159).

전염병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소수 민족이나 외국인은 예나 지금이나 사

회 내에서 쉬운 비난 대상이었다. 특히 리마에서 반복적으로 발병한 황열병, 선페스트와 같은 전염병 확산 시기 중국인 이민자들은 이러한 인종 차별의 주된 대상이었다(Lossio 2021:66). 리마 엘리트들과 위생 전문가들은 마치 전염병과 같은 문제의 원인이 중국인과 이들의 거주지 때문이라는 인식을 공고화했으며, 위생 조사, 검역, 격리 등의 조치를 이들을 주된 대상으로 해서 시행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리마에서 시행되었던 정책(감시, 격리, 철거)의 구체적인 실천 과정에서 어떻게 중국인에 대한 차별이 가시화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2. 전염병과 중국인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

1903년 설립된 공중 위생국(Dirección de Salubridad Pública)은 리마의 공중 보건 환경을 검열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펼쳤다. 특히 전염병 확산 기간 공중 보건부의 위생 전문가들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위생 상태 조사를 진행했다(Parker 1998:160). 이를 통해 위생 전문가들을 각 가구의 위생 상태를 조사 및 기록하고, 소독하고, 선페스트의 전염원이라고 알려진 쥐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Parker 1998:160).

이러한 가정 위생 상태 조사와 소독은 주로 중국인 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Ragas and Palma 2022:385). 이미 위생 전문가들은 물론 언론에서 중국인과 중국인 촌을 전염병의 온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Villafuerte 2014:65, 68). 많은 페루인은 중국인들이 인종적으로 열등하며, 리마 문명화의 걸림돌이라고 인식했다(Parker 1998:157). 위생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중국인 촌은 주거지의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전염병의 온상이었을 뿐 아니라, 아편 소비, 도박, 위조 식품 등을 판매하는 비윤리적인 활동이 이뤄지는 장소이기도 했다(Ragas and Palma 2018:170). 당시 리마의 엘리트들도 중국인 촌과 중앙시장 지역을 아편 소비와 도박이 이뤄지는 문제 지역으로 보았다(Lausent-Herrera 2011:74). 물론 주거지의 슬럼, 도박이나 아편 소비 습관 등은 20세기 초 다종족적인 리마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었지만, 특히나 중국인이 비판의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많은 중국인 이민자는 카폰 거리에서 식당 혹은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가게의 위생 상태가 특별히 더 열악한 상태는 아니었

지만, 위생 전문가와 당국은 이 지역을 전염병의 온상이자 비윤리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 감시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었다(Ragas and Palma 2018:171-172, 2022:386-387).

이처럼 당국은 전염병의 확산에 중국인이 주된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들과 이들의 거주지를 대상으로 위생 조사와 검역을 강화했지만, 실제 카폰 거리에 거주하는 471명의 주민 중 1905년 1/4분기까지 중국인 선페스트 감염자는 29명이었다. 반면 같은 지역에 거주했던 원주민 감염자는 211명이었다(Ragas and Palma 2018:176-177). 실제 선페스트 감염자의 인종적, 사회적 특성은 다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리마 위생 검역관과 같은 위생 당국은 전염병과 중국인 공동체의 상관성을 연계하며, 이미 존재하던 중국인과 중국인 촌에 대한 선입견을 강화하는 데 일조했다(Ragas and Palma 2018:176). 이처럼 실제 전염병 확산은 리마에 거주하던 노동자 계급을 비롯한 상당수의 저소득층이 인구 밀도가 높고, 상수도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다양한 도시 서비스의 혜택에서 배제된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고 있음에 힘입은 바 컸다. 하지만 언론, 위생 당국자, 엘리트들의 인식에는 빈민이나 외국인의 생물학적 특성이나 생활 방식으로 전염병이 확산된 것으로 다루었다(Lossio 2021:77). 선페스트 확산 당시 중국인들의 감염이 마치 문화적 혹은 인종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과 같은 담론을 형성했다(Ragas and Palma 2018:163).

이러한 중국인(촌)과 전염병의 상관성에 대한 인식은 이미 19세기부터 형성되었다. 1868년 황열병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중국인에 대한 인종주의가 가시화되었는데, <El Comercio>에서는 중국인들을 전염병의 온상으로 비난하고, 당국에 중국인 촌을 소독할 것을 요구했으며, 아시아인들의 페루 이주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Lossio 2021:71). 세사르 보르하(Cesar Borja)가 쓴 논문<La inmigración China>(1877)에서는 중국인들의 거주지와 상업 공간을 조사한 결과, 인구 밀도가 전반적으로 매우 높다고 전하면서, 중국인의 이민을 금지하고 이들의 주거지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agas and Palma 2018:168, Melchor 2014:183). 이처럼 리마의 중산층은 중국인을 아편, 매독, 비위생, 전염병과 연계하고, 이들의 비위생적 습관에 주목했다. 또한 리마 시 당국은 위생 검역관을 중국인 촌에 보내서 그들의 음식을 몰수하거나 상업 활동을 금지하

기도 했다(Lossio 2021:71).

이처럼 리마 위생 당국의 전염병 대응 과정에서 전염병 감염이 원주민, 빈민가, 특정 사회 계층과 긴밀한 상관성을 가지는 것처럼 논의되면서, 전염병은 마치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지표가 되었다(Cueto 1991:14). 다시 말해, 전염병은 비위생적인 환경이나 습관에서 발병하며, 이는 근대화되지 못한 인종이나 문화, 혹은 사회적 지위와 긴밀한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실제 부유층의 경우 전염병의 감염 사실을 숨기거나, 방문 의사를 불러 비밀리에 치료를 받기도 했다(Cueto 1991:14). 반면 다수의 대중은 감염과 함께, 격리소로 옮겨졌는데, 격리소는 외딴 지역에 건설되어 매우 열악한 환경으로 알려져, 많은 대중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Cueto 1991:14).

한편, 중국인에 대한 인종주의적 선입견과 반감은 단순히 엘리트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대중이 공유하는 것이었다(Villafuerte 2014:63). 특히 노동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대중이 중국인에 대한 반감을 가진 이유는 중국인들이 다양한 상업 및 경제 활동에 종사한 한편, 20세기 초 페루의 경제·사회적 상황이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¹²⁾ 또한 20세기 초 리마의 노동자들은 이미 식량 부족과 생계비 상승으로 불만이 축적된 상태였다(Villafuerte 2014:66). 20세기 초 경기 침체에 따른 생계 문제와 일자리 부족 문제가 가시화되었고, 이러한 배경에서 노동자들과 수공업자들은 중국인들을 노동과 상업 시장에서 경쟁자로 인식했던 것이다(Melchor 2004:186, 190-191, Parker 1998:169). 이와 더불어, 많은 노동자와 수공업자들은 상류층의 문명화 프로젝트에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류층이 열망했던 진보, 위생, 근대화를 지지하고 있었다(Parker 1998:154).

노동자와 수공업자들과 같은 페루 일반 대중 사이에 팽배했던,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한 불만은 한편으로는 중국인에 대한 반감의 심화로 표출되었

12) 1882년 국제 은 가격의 하락과 생활비 증가로 노동자들의 시위가 증가하기 시작했다(Urquiza 2014:8). 1895~1896년 사이 파업과 시위는 주로 임금 인상과 노동 시간 단축을 요구했다(Urquiza 2014:8). 20세기 초에 들어서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어졌으며, 1907년에는 리마의 핵심 공장 지역인 바타르테(Vitarte)에서 처음으로 총파업이 진행되기도 했다(Urquiza 2014:8). 이러한 상황에서 1903년의 전염병 확산은 이미 팽배해 있던 도시 대중들의 불만을 가중했다(Urquiza 2014:8).

으며, 1909년 반(反) 중국인 폭동으로 가시화되었다. 많은 노동자와 수공업자들은 1909년 증양시장으로 몰려가 중국인에 대한 공격을 집중하기도 했다(Lausent-Herrera 2011:75). 특히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자리에 대한 문제의식이 중국인에 대한 인종주의적 공격으로 이어졌던 것이다(Melchor 2004:186-187).

이처럼 중국인 촌과 중국인 이민자에 대한 위생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 것과 더불어, 중국인 이민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했던 카예혼 오타이사는 지속해서 이동 혹은 철거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1903년 선페스트가 리마에서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언론에서는 중국인 촌을 리마 강 너머 지역으로 즉각 이동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기도 했다(Ragas and Palma 2022:287). 1903년 리마 시장이었던 페데리코 엘게라(Federico Elguera)는 엘리트들과 정치인들이 열망하는 리마의 도시 혁신을 이루기 위해 중국인 촌을 철거하고 보다 위생적이고 근대적 거리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agas and Palma, 2018:177).

1880년 한 위생 전문가는 카예혼 오타이사 내부에서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며, 주민들의 위생적이지 않은 습관과 아편 피는 습관을 지적했으며, 이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고 리마 시정에 보고했다(Ramas and Palma 2018:169). 이와 더불어 리마 시정의 위생 감독관인 후안 아그놀리(Juan Agnoli)와 동료들은 오타이사 카예혼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어, 개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리마의 공중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 철거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agas and Palma 2018:169). 1904년에는 오타이사 카예혼에 당국이 강제로 임차인의 수를 줄일 것을 명령하고 감시 요원을 배치하기도 했다(Parker 1998:165). 이처럼 19세기 말부터 위생주의 전문가, 리마 시정의 위생 감독관들은 끊임없이 오타이사 카예혼을 철거할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며, 전염병의 확산과 중국인에 대한 인종적 반감이 극에 달하는 1909년 5월 결국 오타이사 카예혼의 철거가 결정되었다(Ragas and Palma 2018:170, Ragas and Palma 2022:391). 당시의 리마 시장이었던 빌링허스트(Billinghurst)는 5월 12일 오타이사 카예혼에 140명 이상의 경찰과 군인을 배치해서 주민과 가재 도구를 퇴거시켰다(Melchor 2004:189, Ragas and Palma 2018:178). 당국의 주장에 따르면 오타이사 카예혼의 철거 결정은 리마 위생화 작업의 일환으로, 철거 결정에 대한 빠른 협의와 즉각적인

실행은 유례없는 사건이었다(Rodríguez 1999:420, Villafuerte 2014:66).

빌링허스트가 오타이사 카예혼의 철거를 명한 것은 위생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카예혼의 비위생적 상태에 대해 지적해 온 상황에서 1909년의 노동자들이 주도한 반(反)중국인 폭동에 가시화된 일반 대중들의 중국인에 대한 인종주의적 선입견과 반감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Parker 1998:169-170, Melchor 2004:189). 하지만, 1908년 당시 중국인 노동자들의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4%에도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시의 반(反)중국인 폭동은 오히려 20세기 초 중국인들이 다양한 상업 및 경제 활동에 종사하면서 리마의 많은 노동자와 수공업자들의 경쟁심을 유발했던 것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다(Melchor 2004:190). 이러한 배경에서 포퓰리스트적(populist) 성향이었던 빌링허스트는 노동자들과 수공업자들이 요구했던 경제·사회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보다는 이들의 중국인에 대한 반감에 기대어 오타이사 카예혼 철거 결정을 빠르게 끌어냈던 것이었다.

V. 맺음말

이상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국내 라틴아메리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은 소수 사회 집단인 중국인 이민자 집단을 대상으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중국인 이민자 집단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페루에서 이들의 정착 초기 사회적 배제 경험을 분석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19세기 중반 이후 많은 중국인이 페루로 이주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20세기 초를 전후하여 이들이 페루, 특히 수도인 리마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된 사회적 배제와 그 원인을 분석했다. 최근의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우리 사회도 경험했듯이 전염병의 발병과 확산은 대중들의 불안과 공포에 기대어 한 사회에 내재된 특정 사회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배제의 감정을 가시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다. 이러한 지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1903년 발발한 선페스트 전염병과 페루 사회의 대응을 중심으로 페루 사회의 전염병 확산 과정에서 가시화된 중국인 이민자 집단에 대한 차별과 배제

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19세기~20세기 초 전 세계 곳곳으로 이주해 일했던 인도 및 중국 출신의 아시아계 노동자를 쿨리라 부르는데, 특히 1849~1874년 사이 약 10만 명 정도의 중국인 쿨리가 페루로 이주했다. 이 시기 중국인 쿨리가 페루로 이주한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는데, 먼저 국제적인 맥락에서는 19세기 유럽의 제국주의적 팽창에 따른 식민지 건설과 플랜테이션 농장에서의 값싼 노동력 수요 증가와 더불어 노예무역 폐지에 따른 국제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중국의 국내외적 맥락에서, 19세기 서구 열강의 침입과 혼란에 따른 중국 내부의 혼란과 열악한 생계 환경으로 인해 중국인들의 해외 이주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페루 내부적 맥락에서, 19세기 중반 이후 페루에서의 흑인 노예 노동력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 페루 정부의 이민법 제정, 페루-중국 간 이민 대리인들의 활약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복합적 요인에 의해 19세기 중반부터 페루로 이주해 온 중국인들은 주로 페루 해안지역의 플랜테이션 농장, 구아노 추출 및 철도 건설 현장 등으로 투입되어 페루 근대화 발전에 중요하게 기여했다.

한편, 중국인 쿨리들은 19세기 말부터 자유 노동자 신분으로 농장 주변 마을이나 리마와 같은 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20세기 초부터는 중국 출신의 새로운 자유 이주민들도 페루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자유 신분이 된 쿨리와 자유 신분으로 이주한 중국인 이민자들은 페루 곳곳에 정착하였는데, 20세기 초 수도 리마에 정착한 중국인 이민자들은 32%에 이르렀다. 리마에 정착한 중국인 이민자들은 주로 상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했으며, 특히 리마 중앙시장이 위치한 도심 지역에 중국인 촌을 형성하고 정착했다. 19세기 페루로 온 쿨리 뿐만 아니라 새롭게 이주해 리마에 정착한 중국인 이민자들은 다양한 상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페루의 경제 성장에 기여했지만, 중국인 이민자들이 페루 사회에 통합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특히 근대화 시기 엘리트 계층을 포함한 페루 사회 전반이 가졌던 중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인종적 편견은 꽤 오랫동안 지속했으며, 이는 전염병과 같은 공중 보건 위생 위기와 더불어 더욱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독립 이후 리마에서는 주기적으로 전염병이 확산되어 많은 인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전염병의 확산은 많은 사람에게 공포심과 두려움을 유발

했다. 1903년 4월 선페스트가 리마로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또 다시 발생한 공중 보건 위기는 엘리트층 사이에서 리마 위생 문제에 대한 인식을 다시 고조시켰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위생 전문가와 의사들이 지적해 온 도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가시화되었으며, 페루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와 기관을 설립하였다. 이는 근대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보건 당국이 위생을 강조하게 된 것은 근대화 발전에서 위생이 근대성과 동일시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위생 전문가들은 전염병 확산 방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위생적인 개인행동이나 주거 환경의 개선을 강조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로 비위생적인 주거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특히 유색 인종을 개선의 대상으로 지목하였다. 전염병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소수 민족이나 외국인은 사회 내에서 예나 지금이나 비난 대상이 되기 일쑤였다. 특히 리마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전염병 확산 시기 중국인 이민자 집단은 이러한 인종 차별의 주된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리마 엘리트들과 위생 전문가들은 마치 전염병의 원인이 중국인과 이들의 거주지의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이라는 인식을 공고화했으며, 위생 조사, 검역, 격리 등의 조치에서 이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근대화 과정에서 중국인 이민자 집단을 걸림돌로 인식했음에 기인하는 바가 컸다. 이와 더불어 노동자를 포함한 일반 대중들 역시 당시 팽배했던,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한 불만을 중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20세기 초 리마에서의 페루 사회 전반의 중국인 이민자에 대한 반감은 당시 전염병에 대한 정책적 대응뿐만 아니라 1909년 반(反) 중국인 폭동으로도 가시화되었다.

본 연구는 페루의 근대화 과정에서 중국인 이민자들이 유입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특히 20세기 초 리마에서 이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배제와 원인에 대해 고찰했다. 특히 전염병 확산 과정에서 나타난 페루의 엘리트와 대중 사회 전반의 중국인 이민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사회 내에서의 소수 사회 집단에 대한 사회적 배제 경험을 상기시킨다. 본 연구는 21세기 들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교류가 다양한 측면에서 심화되고 있는 점에서 그동안 국내에서 주목을 덜 받은 라틴아메리카 내 아시아계 소수 인구 집단의 정착 경험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향후, 중국인 이민자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내 아시아계 소수 민족 집단의 주체적 경험에 관한 후속 연구를 통해 환태평양 지역 내의 사회 관계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기현(2010),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은 종족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는가?」, 『라틴아메리카연구』 23-2,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03-240.
- 김달관(2014), 「타자의 정치학: 콜롬비아 태평양연안 지역의 흑인 공동체」, 『국제지역연구』 18-1, 국제지역연구센터, 85-109.
- 김동하(2021), 「19세기 중남미 지역 화교 생성 배경과 특성」, 『중국학』 74, 대한중국학회, 319-343.
- 김영철(2005), 「라틴아메리카의 다문화주의와 흑인 인권: 브라질의 흑인 인권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18-4,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71-103.
- 김영철(2008), 「콜롬비아의 다문화주의와 흑인 인권」, 『이베로아메리카』 10-1, 중남미지역원, 125-162.
- 김영철(2021), 「중남미 재외동포 현황과 정책 과제」, 『중남미연구』 40-4, 중남미연구소, 1-34.
- 김윤경(2013), 「멕시코 원주민의 자치를 위한 운동: 사빠띠스따운동을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4-1, 라틴아메리카연구소, 133-171.
- 노고운(2022), 「팬더믹 감염병의 타자화: 코로나 19시대 한국 내 중국동포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55-3, 한국문화인류학회, 365-417.
- 문남권(2005), 「신자유주의 시대 페루의 민주화와 원주민」, 『국제지역연구』 9-3, 국제지역연구센터, 21-52.
- 박도란(2023), 「아프로콜롬비아 민족의 문화적 투쟁: 흑인클럽에서 흑인공동체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오토피아』 38-1, 인류사회재건연구원, 97-120.
- 박선미(2022), 『전염병의 지리학: 병은 어떻게 세계를 습격하는가』, 갈라과고스.
- 박영종(2005), 「생생한 쿨리의 세계 - 『苦社會』」, 『중국어문화논집』, 35, 중국어문화학회, 417-437.
- 배정환(2021), 「코로나 시대, 미국에서의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범죄: 인종주의 담론과 사회 통제에 관한 논의」, 『경찰학 연구』, 21-3, 경찰

대학, 183-208.

- 서성철(2004), 「라틴아메리카와 한국인 이민/멕시코 한인사회와 현지적응」, 『라틴아메리카연구』, 17-4,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173-202.
- 서성철(2014),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아프로·아르헨티나인: 19세기 흑인 인구의 은폐 과정」, 『라틴아메리카연구』, 27-2,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109-132.
- 서지현(2021), 「식민 도시에서 근대 도시로의 전환: 19세기 페루 리마의 사례」,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4-1,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113-144.
- 신형진 외(2016), 「브라질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적 맥락: 이민시기 별 사회경제적 특성의 비교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10-2, 세계한상문화연구원, 139-159.
- 염미경(2013), 「멕시코 이주와 현지 한인사회의 형성과 변화」, 『재외한인연구』, 30, 재외한인학회, 77-116.
- 오영인(2019), 「미국 1970년 민권법과 이민자들 - 19세기 중국인 쿨리를 중심으로」, 『역사와 세계』, 56, 효원사학회, 261-294.
- 유성희(2023), 「자본주의 세계체제 편입을 통해 바라본 19세기 중국 쿨리의 등장과 쿨리무역 그리고 저항」, 『경제와 사회』, 137, 비판사회학회, 202-244.
- 이성훈(2016), 「마야 원주민 운동과 시민선거위원회」, 『스페인라틴 아메리카연구』, 9-1,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소, 215-238.
- 이성훈(2017), 「코레아 정권과 원주민 운동의 주요 갈등 요인」, 『중남미연구』, 36-3, 중남미연구소, 169-194.
- 이재학(2022), 「아시아 디아스포라와 라틴아메리카: 차별과 갈등에서 현지 적응까지」, 『중남미연구』, 41-1, 중남미연구소, 97-128.
- 이채문·박신규(2020), 「멕시코 한인들의 초기 이주실태와 재이주 분석」,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3-2, 통일연구원, 59-88.
- 임두빈(2015),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브라질 원주민 정체성 문제에 대한 연구」, 『중남미 연구』, 34-3, 중남미연구소, 105-129.
- 정영구(2017), 「19세기 후반 중국인 쿨리 해외이주의 개념과 방식」, 『명청사연구』, 48, 명청사학회, 565-592.
- 정영구(2018), 「19세기 중반 중국의 쿨리무역」, 『동양사학연구』, 142, 동양사

학회, 171-204.

정이나(2015), 「과테말라 마야 원주민 운동 정치: 계급과 문화 사이에서」, 『중남미연구』, 34-2, 중남미연구소, 259-287.

조영현(2015),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운동: 사파티스타운동과 에콰도르원주민민족연맹 (CONAIE)에 대한 비교 연구」, 『이베로 아메리카연구』, 26-3, 라틴아메리카연구소, 317-356.

주종택(2005), 「멕시코의 원주민 정책과 종족성: 메스티소와 원주민의 관계」, 『라틴아메리카연구』, 18-4,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37-270.

최진옥(2019), 「칠레 한인의 ‘현재형’ 삶과 표류하는 정착」, 『재외 한인연구』, 48, 재외한인학회, 1-34.

Arquínigo, C.(2019), “La historia de cómo la temible peste bubónica llegó al Perú y los daños que causó,” *El Comercio*, 20 Feb 2019.

Cabrejo, M. F.(2001), *Diversiones Públicas en Lima, 1890-1920. La Experiencia de la modernidad*. Lima: Universidad del Pacífico;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IEP.

Cueto, M.(1991), “La Ciudad y las Ratas: La Peste Bubónica en Lima y en la Costa Peruana a Comienzos del Siglo Veinte,” *Historica* 16(1), 1-26.

Cueto, M.(2000), *El Regreso de las Epidemias: Salud y sociedad en el Perú del Siglo XX*. Lima: IEP.

Cultura para Lima (2018), “La Calle Capón y la Construcción del Mercado Central,” retrieved from <https://medium.com/@culturaparalima/la-calle-cap%C3%B3n-y-la-construcci%C3%B3n-del-mercado-central-3a8086dfad0d> (2023. 7. 15.).

de Trazegnies, F.(1999), “Discurso por el sesquicentenario de la inmigración china,” *Derecho PUCP* 52, 1011-1028.

Lausent-Herrera, I.(2011), “The Chinatown in Peru and the Changing Peruvian Chinese Community(ies),” *Journal of Chinese Overseas* 7, 69-113.

Lossio, J.(2003), *Acequias y Gallinazos. Salud ambiental en Lima del siglo XIX*. Lima: IEP.

- Lossio, J.(2021), *Pandemias y salud pública. Historias de cuarentenas y vacunaciones*. Ministerio de Cultura y Bicentenario Perú 2021.
- Melchor, C. C.(2004), “Discursos Antichino en Lima: Realidades y Ambigüedades a Fines del Siglo XIX e Inicios del XX,” *BIRA* 31, 179-193.
- Nelkin, D. and Gilman, S.(1998), “Placing Blame for Devastating Disease,” *Social Research* 55(3), 361-378.
- Parker, D. S.(1998), “Civilizing the City of Kings: Hygiene and Housing in Lima, Peru,” *Cities of Hope. People, Protests, and Progress in Urbanizing Latin America, 1870-1930*, ed. by Pineo, Ronn and Baer, James A., Boulder and Oxford: Westview Press.
- Ragas, J. and Palma, P.(2018), “Enclaves sanitarios: higiene, epidemias y salud en el Barrio Chino de Lima, 1880-1910,” *Anuario Colombiano de Historia Social y de la Cultura* 45(1), 159-190.
- Ragas, J. and Palma, P.(2022), “Covid-19, the Chinese diaspora, and the enduring legacy of racism in Peru,” *História, Ciências, Saúde – Mamguinhos* 29(2), 381-398.
- Rodríguez, Humberto(1999), “Calle Capón, el Callejón Otaiza y el Barrio Chino,” *Mundos Interiores. Lima 1850-1950*, ed. by Panfichi, Aldo and Portocarrero, F.(eds.), Lima: Universidad del Pacífico.
- Rodríguez, Antonio, C.(2014), ‘Unas notas sobre el Antiguo Mercado de la Concepción, Hoy Mercado Central de Lima,’ *Arqueología y Sociedad* 28, 367-378.
- Sen, C. C.(2005), “De cómo los <<chinos>> se transformaron y nos transformaron en peruanos. La experiencia de los inmigrantes y su inserción en la sociedad peruana, 1849-1930,” *Investigaciones Sociales* 15, 109-132.
- Tamayo, J. A.(2017), “Modernidad, higiene y elite. La República Aristocrática y la fundación del distrito de San Miguel(1910-1920),” *XXVII Coloquio Internacional de Estudiantes de Historia PUCP*.
- Urquiza, W. L.(2014), “Crisis Urbana, El Discurso Higienista y el Problema

de la Vivienda en Lima de 1900,” *WASI* 1(2), 7-22.

Villafuerte, G. P.(2012), “Aspectos Generales de la Inmigración y la Demografía China en el Perú(1849-1903),” *Historia* 2(4), 126-140.

Villafuerte, G. P.(2014), ““El Peligro amarillo”: Miedo y violencia en torno al inmigrante chino, Lima, 1891-1919,” *Diacrónica* 2(2), 63-72.

Villanueva, A. F. (2020), “Políticas públicas modernas en la configuración urbana de los balnearios de Lima a inicios del siglo XX: Miraflores,” *Investiga Territorios* 12, 19-28.

❖ ABSTRACT

Chinese Migration to Peru and Their Social
Exclusion in the Spread of the Epidemics in Lima
in the Early 20th Century

Seo, Jihyu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Chinese immigrants and their experiences of social exclusion in the early stages of settlement in Lima, the capital of Peru. This minority population group has receive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in domestic Latin American studies. Peru is relevant since the country has the second largest group of Chinese immigrants in the Americas after the United States. First, this study analyses the complex background of the migration of Chinese coolies, who are indentured laborers, to Peru since the mid-19th century. In addition, new free immigrants from China joined them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study analyses the social exclusion of Chinese immigrants while settling in Lima and their causes. In particular, as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in the recent spread of COVID-19, the outbreak and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provides an important opportunity to visualise the feeling of discrimination or exclusion against a specific social group that has accumulated in a society based on public anxiety and fear. With this in mind, this study focuses on the bubonic plague epidemic that started to spread in Lima in 1903 and the response of Peruvian society. It also analyses the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against the Chinese immigrant group that became visible during the epidemic.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examines the early settlement experience of Asian minority populations in Latin America,

which has received less attention domestically, as Asia-Pacific relations have been deepening in various aspects in the 21st century. It is hoped that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research on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in the Pacific Rim, including the diverse experiences of Asian minority groups in Latin America, including Chinese immigrant groups.

Key Words : Coolies, Chinese Migrants, Immigration, Epidemics, Social Exclusion

■ 논문투고일 : 2023. 09. 03

■ 심사완료일 : 2023. 10 .10

■ 게재확정일 : 2023. 10. 11